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다차원적 탄력성

이 상 준¹⁾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76명의 고위험 청소년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 개인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1.5%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4.9%, 학업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37.2%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중 1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26.3%로 나타났고, 2개 차원에서는 28.7%, 3개 차원 모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1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8.4%가 1개 차원 이상에서 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 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많을수록, 교과과정 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수록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다차원적 탄력성, 부모간 폭력, 보호요인, 청소년

1) 교신저자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E-mail : sharelove@chol.com)

I. 서론

본 연구는 부모간의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은 부적응의 어려움과 문제행동을 갖게 된다는 낙인적 관점을 지양하고, 이들 중에서도 보다 높은 적응성을 나타내는 탄력적인 청소년들이 있다는 강점관점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자긍심과 존중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가정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면서 일차적인 사회화 장소로 가정내 폭력에 대한 노출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적응적 발달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가정폭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모님들 간의 폭력상황을 목격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연구(조미숙, 1999; 김정란, 2003)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 중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이나 비행,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재엽, 1998; 김정란, 2003; 엄명용, 2001; 조미숙, 1999; Eckenrode, Laird, & Doris, 1993; Smith & Thornberry, 1995; Wolfe & Jaffe, 1991)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이러한 부적응적이고 문제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 이들의 유능

성(적응성 또는 긍정적 능력)을 강조하는 강점관점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박현선, 1998; Lewis III, 2003; Voegler, 2000)이 나타나고 있다.

탄력성(resilience)이란 동일한 위험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서(박현선, 1998), 역경을 겪고 있는 개인이 그의 힘과 능력의 일부를 잃었으나 결국에는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Garmezy, 1993), “중대한 위협이나 심한 역경에 대한 노출”,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겪는 주요 공격(assaults)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긍정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축하고 있다(Luthar, 1991; Luthar, Doernberger, & Zigler 1993;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또한 Masten(1994)은 기대된 결과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낸 고위험 집단 사람들, 스트레스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좋은 적응, 그리고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탄력성에 대해 고위험 상황과 높은 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성이란 위험 환경에 처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노출의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높은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탄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영역(Cicchetti, Rogosch, & Holt, 1993; Rew, Taylor-Seehafer, Thomas, & Yockey, 2001)과 사회적 관계영역(Luthar et al., 1993; Voegler, 2000), 학교영역(박현선, 1998; Makris, 1999; Powers, 2003)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탄력성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다(Luthar et al., 2000).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은 어느 한 가지 범주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Luthar 등(1993)은 고위험 상황의 청소년들이 어떤 한 차원에서는 유능성을 보였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한 차원에서는 탄력성이 없을지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탄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탄력성의 다차원성이 가지는 의미는 청소년이 어떤 한 차원에서 탄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를 비탄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탄력성을 각기 단편적으로 수행한 연구들과 달리 탄력성을 다차원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Luthar et al., 1993; Kaufman, Cook, Arny, Jones, & Pittinsky, 1994;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 O'Donnell, Schwab-Stone, & Mueeed, 2002).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 Luthar(1991)와 Luthar 등(1993)은 주장성, 리더십, 사회성, 학업성적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Kaufman 등(1994)은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생활과, 사회적 유능성, 임상증상을 다차원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Masten 등(1999)은 학업적 성취와 행동적 유능성, 동료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을 통해서 탄력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구성하였으며, O'Donnell 등(2002)은 자기신뢰, 대인관계, 약물남용, 비행, 우울/불안, 신체화 등을 다차원적인 탄력성의 지표로서 구성하였다. 또한 Olsson과 Bond, Burns, Vella-Brodrick, Sawyer 등

(2003)은 탄력적 산물에 대해 다양한 영역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학업적, 직업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유능성(적응성 또는 긍정적 능력)을 사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개인의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과의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탄력성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의 다차원적 탄력성을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성 연구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탄력성 지표를 자기개념이나 자존감, 개인적 유능성, 자기수용, 자기신뢰, 자기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평가해 왔으며(Gicchetti et al., 1993; Romans, Martin, Anderson, O'Shea, & Mullen, 1995; O'Donnell et al., 2001; 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 Tebes, Kaufman, & Racusin, 2001), 사회적 영역에서의 탄력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성, 리더십, 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학업적 차원에서는 학업적 탄력성(Lewis III, 2003; Powers, 2003), 학교탄력성(박현선, 1998; Hernandez, 1993), 교육적 탄력성(Makris, 1999; Evans-Winters, 2003)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력성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강점은 빈곤이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위험환경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환경에서도 탄력성을 갖게 하는 보호요인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탄력성 연구자들은 위험환경에서 어떤 아동들은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반면 다른 아동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하면서 보

다 적응적인 양상인 탄력성을 보이는데 관심을 갖고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보호요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탄력성 연구에서 보호요인이란 부적응적 결과를 낳기 쉬운 어떤 위험상황으로부터 개인의 반응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utter, 1990). Olsson 등(2003)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개별 수준의 개입과 가족수준, 사회환경수준의 개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의 수준을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요인, 사회환경요인의 범주 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타인과의 연계감과 삶에 더 큰 의미나 목적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폭력이나 외상생존자의 회복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huler, Gelberg, & Brown, 1994). 또한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보호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Perkins & Jones, 2004), 고위험 청소년들의 학업적, 사회적 탄력성에 주요 보호요인이며(Graham, 2001), 아동기에 성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을 가치 있다고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탄력성 발달에 기여한다(Valentine & Feinauer, 1993). 내적통제소재는 개인이 어떤 사건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지각하는 성향으로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적응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며(장덕희, 2001; 정인숙, 2003),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고위험의 영향을 완화시키고(Luthar, 1991),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Valentine & Feinauer, 1993; Werner, 1995).

다음으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부부간

의 불화나 가정폭력, 또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에게서도 적응적 산물을 낳을 가능성을 높여주며, 양육자와의 친밀감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기본적인면서도 강력한 보호체계로 기능한다(Masten & Coatsworth, 1998). 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다(Bornstein & O'Neill, 1992; 남영옥, 1998 재인용). 부모가 지지적이고 보호적이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자녀들은 가정폭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한다(Romans et al., 1995). 결국 부모가 지지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학업적, 사회적 유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박현선, 1998; Kriebel, 2002).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가치관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고 내적 긴장의 완화와 관계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신감과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남영옥, 1998).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가족 내의 관계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 해결수단으로써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가출과 폭력 등 문제행동에 보호적으로 기능하며(남영옥, 1998; 박소춘, 2000), 부모-자녀간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Grossman, Beinashowitz, Anderson, Sakurai, Finnin, & Flaherty, 1992; Carson, Chowdhury, Perry, & Pati, 1999).

그리고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만큼 그 또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일탈또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은 우울, 신체화 증상, 자살사고를 포함한 내재화 문제와 약물사용, 의도적 폭행, 절도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Dekovic, 1999). 반면, 친사회적 특성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더 높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Perkins & Jones, 2004),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glund & Leadbeater, 2004).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역할 모델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탄력성 연구자들은 부모 이외의 다른 중요한 성인의 지지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적 불화로부터 일치감과 낙관성을 갖게 하고, 탄력성을 촉진시킨다고 보았으며(Werner, 1995; Spencer, 2002), 성인의 지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과(Perkins & Jones, 2004) 가출실패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보호적으로 기능하며(Voegler, 2000), 빈곤청소년들의 학교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1998; Hernandez, 1993). 학생들이 방과 후나 점심시간 등에 교과과정 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의 안녕감과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과과정 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가치와 친구와의 친밀성, 행동수행능력, 사회적, 학업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Daley & Leahy, 2003). 아동기 성학대 경험 여성에 대한 탄력성 연구

(Valentine & Feinauer, 1993)에서는 교과과정 외 활동이 이들에게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역할모델뿐 아니라 우정관계도 제공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외 활동은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흡연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을 덜하게 하며, 학업적 성취나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행동에 보호적으로 작용한다(Perkins & Jones, 2004). 그리고 고위험의 빈곤청소년들이 교과과정 외 활동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책임성,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등의 학교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rnandez, 1993; 박현선,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다차원성에 기초하여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 중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인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다차원적 탄력성 향상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전체 130개 학교 중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6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1개교를 비비례층화표집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학교당 6개 학급씩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2,114명의 응답자료 중 우선 부모간의 정서폭력과 신체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640명을 조사도구의 점수에 따라 선별하였으며, 이들 중 부모간 폭력 점수가 낮은 하위 3분위 1을 제외한 나머지 376명을 고위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부모간 폭력

부모간 폭력은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본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부모님들 간의 폭력을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폭력 7개 문항, 신체폭력은 12개 문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의 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종교적 신념은 Perkins와 Jones(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종교적 신념도구와 Levin 등(1995)이 개발한 다차원적 종교성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9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소재는 Alva(1989)가 개발한 YCS (Youth Coping Scale)를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6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하 긍정적 양육행동)은 이시형 등(1996)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도구 중 민주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5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 .79, 모 .78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이하 개방적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도구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1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 .92, 모 .92로 나타났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Perkins와 Jones(2004)의 또래집단 특성척도와 Sebanc(1999)가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67로 나타났다.

다른 성인의 지지는 Perkins와 Jones(2004), Olson(2003)의 다른 성인의 지지척도, 그리고 Hernandez(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외 활동은 Achenbach(1994)의 사회적 활동수준 측정도구를 박현선(1998)이 한국 교과과정 상황에 맞게 보완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10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교과과정 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탄력성

개인적 탄력성은 자존감과 자기신뢰, 자기수용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자존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영자(1996)가 수정·보완한 내용 중 본 연구에 맞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신뢰는 Coopersmith가 개발한 자기지각 평가도구를 오전영(1981)이 번안하고, 박난숙(1992)이 수정·보완한 내용의 자아신뢰척도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수용은 Dignan(1965)이 개발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서봉연(1975)이 번역한 내용 중 8문항으로 구성된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탄력성은 사회적 유능성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사회기술평가척도(Graham, 2001) 중에서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 중에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공감 10문항, 협동성 9문항, 주장성 9문항,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학업적 탄력성은 박현선(1998)의 학교탄력성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7문항,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5문항, 학교규범 준수 10문항,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차원적 탄력성 향상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SPSS 12.0과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고위험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표 1은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제시한 결과이다.

표 1과 같이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은 남학생 47.6%(179명), 여학생 52.4%(197명)으로 전체 376명이었다. 학교급식에 따라

표 1. 고위험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N=376)

인구사회적 특성		N	%
성별	남학생	179	47.6
	여학생	197	52.4
학교	중학교	170	45.2
	인문계고등학교	118	31.4
	전문계고등학교	88	23.4

서는 중학생이 45.2%, 인문계 고등학생 31.4%, 전문계 고등학생 23.4%로 나타났다.

2.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

본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 노출의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높은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탄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높은 적응의 기준은 선행연구(Kaufman et al., 1994)¹⁾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적 적응수준 이상을 높은 적응의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유능성 평균 이상을 높은 적응성의 기준으로 하여 개인적 유능성은 73.23점 이상, 사회적 유능성은 78.51점 이상, 학업적 유능성은 65.21점 이상인 고위험 청소년들을 탄력적인 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표 3은 위에서 설정한 높은 유능성의 기준을 근거로 탄력적인 청소년집단을 분류한 결

1) 학대 경험 아동에 관한 카우프먼 등(Kaufman et al., 1994)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들의 평균적 적응수준 이상을 높은 유능성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탄력적 집단으로 보았다.

표 2. 높은 유능성 기준 (N=2,114)

산출근거	유능성 차원	기 준
전체 조사대상	개인적 유능성	73.23점 이상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78.51점 이상
유능성 평균 이상	학업적 유능성	65.21점 이상

표 3.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 (N=376)

탄력성 차원	N	%
개인적 탄력성	156	41.5
사회적 탄력성	169	44.9
학업적 탄력성	140	37.2

과이다.

분석결과,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 중 개인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1.5%로 나타났고,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4.9%, 학업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37.2%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탄력성 청소년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개인적 탄력성과 학업적 탄력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4.9%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대경험 청소년들에 대한 Kaufman 등(1994)의 연구에서 14%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학업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이 37.2%로 나타난 본 결과는 Kaufman 등(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38%와는 유사하였으며, 빈곤 청소년에 관한 Hernandez(1993) 연구의 40%보다는 다소 낮았고, 박현선(1998) 연구에서 나타난 15% 보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림 1은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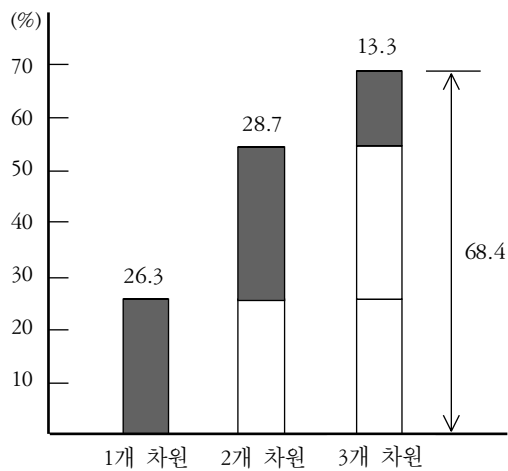


그림 1. 다차원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 비율

소년들의 다차원적인 탄력성 집단을 나타낸 결과이다. 즉, 1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분포와 2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분포, 그리고 3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분포이다.

분석결과, 1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26.3%로 나타났고, 2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28.7%, 그리고 3개 차원 모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1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개 차원 이상에서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68.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Luthar(1993)의 연구에서 고위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중 1개 차원 이상에서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41.7%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높은 유능성의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임을 고려해야 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간 폭력의 노출 위험이 생활스트레스나 빈곤과 같은 다른 위험보다 결코 덜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 중 탄력적 집단이 68.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호요인으로서는 종교적 신념과 내적통제소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교과과정 외 활동을 투입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간 관계가 .7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다른 성인의 지지간 관계가 .337로 높았으며, 그 외의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30 이하로 나타났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간 관계가 .721로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일반적 기준인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높은 유능성의 기준에 대해 Kaufman 등(199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평균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Hernandez(1993)의 연구에서는 상위 1/3,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는 상위 1표준편차를 높은 유능성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Luthar(1993)의 연구에서 높은 유능성의 기준은 상위 1/3이다.

표 4는 먼저 다차원적 탄력성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탄력성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탄력성 측정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측정변수들에 대한 이론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차원적 탄력성은 개인적 탄력성의 23.0%, 사회적 탄력성의 45.4%, 학업적 탄력성의 50.0%

표 4. 탄력성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다중상관자승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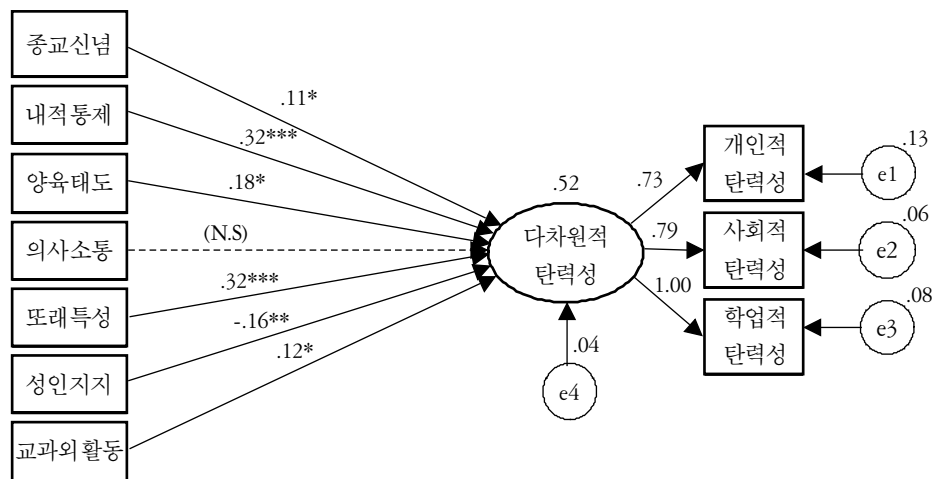
이론변수	측정변수	B	β	t	SMC
다차원적 탄력성	개인적 탄력성	0.727	.517	6.506***	.230
	사회적 탄력성	.785	.674	8.390***	.454
	학업적 탄력성	1.000	.707	-	.500

*** $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와 표 5는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회귀모형을 각각 그림과 도표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검증은 유의도가 0.05보다 작은 .003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추세이다. 즉, 표본수가 200사례 이상이면 대부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조현철, 2003). 본 연구의 표본이 376사례라는 것을 감안하면 χ^2 검증은 참고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RMSEA는 0.08보다 작은 양호한 수준인 .066으로 나타났고, RMR은 0.05보다 작은 .008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 .987, NFI .969, TLI .909, CFI .980으로 모두 우수한 수준인 0.9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 χ^2 26.190, df 10, P .003, RMAEA .066, RMR .008, GFI .987, NFI .969, TLI .909, CFI .980

그림 2. 다차원적 탄력성에 대한 보호요인의 회귀모형

표 5. 보호요인이 다차원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차원적 탄력성		
		B	SE	β
종교적 신념		.046	.021	.110
내적통제소재		.176	.030	.3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092	.036	.184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015	.032	.033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256	.045	.315
다른 성인의 지지		.059	.020	.156
교과과정 외 활동		.075	.032	.119
SMC		.52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와 표 5와 같이 보호요인이 다차원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종교적 신념과 내적통제소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교과과정 외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내적통제소재($\beta = .321$)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315),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184), 다른 성인의 지지(.156), 교과과정 외 활동(.119), 종교적 신념(.1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요인은 다차원적 탄력성에 대해 5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를 가질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많을수록, 교과과정 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적 신념이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종교적 믿음 또는 영성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 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생활에서 더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내적통제소재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서 탄력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이 비록 부모간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부모간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 교과과정 외 활동

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부모간 폭력의 위험에 대해 청소년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충분히 보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다른 사람을 돕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학교생활에도 성실한 친사회적인 특성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가정에서 부족했던 지지적 에너지를 다른 성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폭력 노출이라는 부정적 경험과 정서를 교과과정 외 활동을 통해서 승화적으로 발산하고, 그 활동집단의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경험은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의 다차원적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지역 청소년에 관한 Luthar(1991)의 연구에서 고위험 스트레스가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내적통제소재가 나타난 결과와 Grossman 등(1992)의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가 저소득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Wener(1995)의 종단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와 다른 성인의 지지가 탄력성의 특징으로 나타난 결과, 그리고 Valentine과 Feinauer(1993)의 연구에서 탄력적인 성학대 경험 여성들이 더 높은 영성과 더 많은 교과과정 외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 빈곤청소년에 관한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부모가 지지적이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학업적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76명의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 개인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1.5%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44.9%, 학업적 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37.2%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중 1개 차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26.3%로 나타났고, 2개 차원에서는 28.7%, 3개 차원 모두에서 탄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1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8.4%가 1개 차원 이상에서 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종교적 신념과 내적통제소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교과과정 외 활동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경향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많을수록, 교과과정 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수록 이들의 다차원적 탄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을 탄력성 발달에 맞출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탄력성의 다차원성은 청소년이 어느 한 영역에서 비탄력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탄력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감추어진 강점과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68.4%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중심적 접근을 통해서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이며, 문제청소년일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은 문제중심적 접근보다는 그들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중심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부모간 폭력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족에 개입하여 폭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폭력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간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종교적 신념과 내적통제소재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대한 개입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변화시

킬 수 있는 가족적 개입, 그리고 환경적으로 친사회적 또래집단을 활성화하고 다른 성인의 지지자원을 연결하며,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결국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의 성공적인 열쇠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보호적 자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보다 기능적이고 보호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적응력과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루어내지 못한 한계들이 있다. 첫째는 부모간 폭력 고위험 청소년들을 선별함에 있어 통계적 기준에 근거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의 고위험에 대한 기준점 설정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간 폭력 노출 청소년의 다차원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상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환경요인 중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족환경요인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결국 한 연구에서 담아낼 수 있는 관련 요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신 · 김정란 (2002). 가정폭력 세대전이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79-98.
- 김재엽 · 정소연 (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 71-93.
- 김정란 (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 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0.
- 남영옥 (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난숙 (1992). Methy1phenidate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 · 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춘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숙 · 박옥임 (2002).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 51-73.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 이시형 · 이세용 · 정현희 · 박현선 (1996).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숙 (2003).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모델 SIMPLIS & AMOS. 도서출판 석정.
- Carson, D. K., Chowdhury, A., Perry, C. K., & Pati, C. (1999). Family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competence in India: Investigation of youth in southern Oriss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2), 211-233.
- Cicchetti, D., Rogosch, M. L.,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26-647.
- Conger, J. C., & Conger, A. J. (1982). Components of heterosocial competence. In J. P. Curran, & P. M. Monti (Eds.), *Social skills training: A practical handbook for*

-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Daley, A. J., & Leahy, J. (2003). Self-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The Physical Educator*, 60(2), 13-19.
- Dekovic, M.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6), 667-685.
- Dodge, K. A. (1985). Facets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R. H. Schneider, K. H. Rubin, & J. E. F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3-22). New York: Springer-Verlag.
- Eckenrode, J., Laird, M., & Doris, J.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53-62.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 Biological Processes*, 56(1), 127-136.
- Graham, B. L. (2001). *Resilience among American Indian youth: First nations' youth resilienc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ray, J. P. (2001). *The relations of teacher education, student' resiliency, work motivation, and school-level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 Grossman, F. K., Beinashowitz, J., Anderson, L., Sakurai, M., finnin, L., & Flaherty, M. (1992). Risk and resilience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5), 529-540.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renkohl, E. C., Herrenkohl, R. R., & Egolf, B. (1994). Resilient early school-age children from maltreating homes: Outcomes in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301-309
- Hoglund, B. J., & Leadbeater, B. J. (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 Jumper, S. A. (199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 sexual abuse to adult psychoogical adjustment. *Child Abuse & Neglect*, 19(6), 715-728.
- Kaufman, J., Cook, A., Arny, L., Jones, B., & Pittinsky, T. (1994). Problems defining resilienc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15-229.
- Levin, J. S., Yaylor, R. J., & Chatters, L. M. (1995).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 involvement for African American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1), 157-173.
- Lewis III, M. K. (200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lated constructs among academically resilient and academically*

- nonresilient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Luthar, S. S., Doernberger, C. H., & Zigler, E. (1993). Resilience is not a unidimensional construct: Insigh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inner-city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03-717.
- Makris, H. P. (1999). *Educational resilience: Mediating factors of adolescents' ad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Wang, & E. Gordon (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3-25). Hillsdale, NJ: Erlbaum.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1.
- Masten, A. S., Hubbard, J., Gest, S.,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Miller, S. B. (1998). *Facilitation of peer relations: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ctivities and its relation to their peer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O'Donnell, D. A., Schwab-Stone, M. E., & Mueeed, A. Z. (2002). Multidimensional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Child Development*, 73(4), 1265-1282.
- Olson, J. R. (2003).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Powers, T. V.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rotective factors, volition, and academic resilience in chronically-ill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Raver, C., and E. Zigler.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 Yockey, R. D. (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Reynolds, M. W., Wallace, J., Hill, T. F., Weist, M. D., & Nabors, L. 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children who have witnessed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5(9), 1202-1206.
- Romans, S. E., Martin, J. L., Anderson, J. C., O'Shea, M. L., & Mullen, P. E. (1995). Factors that mediate between child sexual abuse and adult psychological outcome. *Psychological Medicine*, 25, 127-142.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eu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gy, S., & Dotan, N. (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25, 1463- 1480.
- Sebanc, A. M. (1999). *Friendship experiences among preschool children: Links with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huler, P., Gelberg, L., & Brown, M. (1994). The effects of spiritual/religious practi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inner city homeless women. *Nurse Practitioner Forum*, 5, 106-113.
- Smith, C. A., Lizotte, A. J., thornberry, T., & Krohen, M. D. (1996). Resilient youth: identifying factors that prevent high-risk youth from engaging in delinquency and drug use. In J. Hagen (Eds.), *Delinquency and disreputb in the life course*(217-247). Greenwich, CT: JAI Press.
- Smith, C., & Thornberry, T. P. (1995)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 451-477.
- Spaccarelli, S., & Kim, S.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 Neglect*, 19, 1171-1182.
- Spencer, R. A. (2002). *Hanging out and growing strong: A qualitative study of relationships with adults that foster resilience in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Straus, M. A., Hamby, S. H., Boney 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ebes, J. K., Kaufman J. A., & Racusin, G. (2001). Resilience and family psychosocial processes among children of parents with serious mental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115-136.
- Valentine, L. M., & Feinauer, L. L. (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 216-224.
- Valeski, T. N. (2000).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Pathways to early academic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Voegler, M. E. (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ocial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3), 81-85.
- Werner, E. E., & Smith, R.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olfe, D. A., & Jaffe, P. (1991).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as determinants of child psychopat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282-299.
- 1 차원고접수 : 2008. 01. 31.
수정원고접수 : 2008. 02. 18.
최종게재결정 : 2008. 02. 20.

Multidimensional Resilience of Adolescents Exposed to Violence between Parents

Lee, Sang-June

Dept. of Social Welfare,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resilience of high-risk adolescents exposed to violence between parents, and the influences of protective factors on their multidimensional resilience. The sample consisted of 376 high-risk adolescents exposed to violence between par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41.5% of high-risk adolescents exposed to violence between parents exhibited personal resilience, 44.9% exhibited social resilience and 37.2% exhibited academic resilience. Second, 26.3% of the high-risk adolescents were resilient in one dimension, 28.7% were resilient in two dimensions and 13.3% were resilient in all three dimensions. Overall, 68.4% were resilient in one or more dimensions. Third,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the following factors; religiosity, internal locus of control, positive parenting,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support given by other adul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more likely that an increased level of multidimensional resilience would be seen on the part of subjects.

Key words : multidimensional resilience, violence between parents, protective, adolescents